

모돈의 번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관리 포인트



김재형 PM
우성사료

농장을 방문하다 보면 자돈 소모성 질환과 모돈 유산 증상에 고생하는 농장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환절기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까? 농장 스스로가 더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이들 농장의 공통점은 임신사에 가보면 알 수 있다. 한 눈에 보더라도 등골이 튀어 나오고 피부가 지저분하며 털이 까칠하고 다리가 아파 절룩거리는 임신돈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 양돈장이 질병이 많은 이유중 하나는 모돈의 건강관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모돈 BCS(바디 컨디션 스코어 : Body condition score) 관리는 모돈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농장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등한시 하거나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

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건강한 모돈에서 건강한 자돈이 태어나고 길러지는 것이다.

모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순환 관리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놓치고 있는 모돈의 사료 관리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임신사 사료 관리

가. 임신사 자동 급이기통 1kg 눈금 체크하자

급이기가 오래됨에 따라 눈금이 정확하지 않다. 임신돈 사료 기준 급여량은 2kg이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양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급이기 별로 1kg 눈금을 점검하라. 임신사 사양관리의 시작이다.

나. 임신사에 5kg 저울 배치하자

임신돈 사료를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개량하여 부피 변화에 따른 급이량을 정확하게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임신돈 사료는 다른 사료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변비 예방 및 포만감) 부피

변화가 다른 사료에 비해 민감할 수 있다.

다. 모든 계절별 내외부 기생충 완전 구충

내외부 기생충제제 (이버멕제제) 사료 첨가 및 주사하는 것이 좋다.

음의 완전 박멸을 위해서는 계절별 임신돈, 포유돈 사료 첨가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음의 가려움증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B.C.S 불량, 백신효과 불량, 무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구충과 돈체 소독없이 어떠한 사양관리도 논할 수 없다. 완전 구충은 생산성을 20% 향상시킬 수 있다. 구충에 투자하자.

다. 임신사 단열 및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

임신사 공기 질의 향상은 번식 성적을 크게 향상 시키며 관리자의 건강도 좋게 해준다. 특히 임신사 환기 설계를 통해 분만율 5% 이상 향상되어 요즘 같이 고돈가 시대에 많은 수익을 얻는 농장 사장님을 많이 보았다. 임신사 단열 및 환기 관리에 투자하자.

임신사 온도 관리 및 환기 불량시 사료 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자 대비 엄청난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2. 10월 임신돈 마름 현상이 심한 경우

가. 임신 초기부터 증량 급여를 실시하자

임신 초기시 배아 사망 때문에 제한 급여를 하나 모든 마름 현상이 심한 농장은 모든의 공복감 및 에너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배아 사망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모든의 체형 회복이 될 때까지 증량 급여해야 된다(2.5~3kg 급여).

초기 증량 급여 없이 중기 증량 급여시 겨울철에는 체형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나. 모든의 마름 현상이 전반적으로 심할 시 전라인을 포유돈 사료로 교체하자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종부~임신 107일 까지)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단계 낮은 열량의 포유돈사료로 20일 이상 모든의 체형이 회복하고 임신말기돈의 털이 윤기가 날 때까지 증량 급여하자.

증량 급여후, 체형 회복후, 임신돈 교체후, 면역증강제 및 사료 효율 개선제(예: 생균제나 효소제) 투여 하자(면역력 회복 및 효율 개선).

<온도에 따른 사료 증량 프로그램>

온도	구분	0	5	6~7	8~9	10~11	12~13	14~16	17~18	19~20	21~25	30 <
임신돈(1~12주)		3.1	2.8	2.7	2.6	2.5	2.4	2.3	2.2	2.1	2	1.9
임신돈(13~15주)		3.6	3.36		3		2.76			2.4		2.3
이유모돈		4.6	4		3.6		3.3			2.9	2.8	2.7
웅 돈		4.2	3.6		3.1		2.6			2.4	2.1	2

다. 호흡기 문제시 전체적인 크리닝 실시 및 포유돈 급여시 항생제 첨가

모돈의 호흡기 발생시 플로로마이신(SAB 바이오텍) 톤당 2kg 투여 후 호흡기 치료 후 슈퍼로신이나 슈퍼티아로 포유돈 급여시 항시 항생제 첨가 (모돈 100두당 1개월간 포유돈 4톤 급여 : 경제성 있음)

<체평점에 따른 사료 급여량>

모돈의 체평점	1회 사료 증감량	1일 사료 증감량
1.0	도태	도태
1.5	+ 200g	+ 400g
2.0	+ 150g	+ 300g
2.5	+ 100g	+ 200g
3.0	0	0
3.5	- 100g	- 200g
4.0	- 150g	- 300g
4.5	- 200g	- 400g
5.0	도태	도태

3. 분만사 사료 관리

가. 분만 직전과 분만 이후 3~4일간 사료 급여관리를 철저히 하자

분만 징후가 있거나 분만 유도제를 투여하여 분만 예정일인 모돈에게는 당일 절식과 분만 후 충분한 음수의 섭취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장의 운동이 자궁의 활동을 억제하여 난산을 초래하고 후산정체를 일으켜 손을 사용하게 되고 자궁 내막염이나 질염을 발생시켜 모돈이 열이 발생하고 분만 후 사료 섭취 거부를 하게 된다.

분만 직후 충분한 음수 섭취와 3~4일간의 사료 급여 관리가 포유 기간 전체의 사료 섭취량을 좌

우한다.

분만후 사료를 먹지 않으면 시원한 물에 대용유를 타서라도 물을 많이 마시게 해야 하며 보조 급수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최소한 15일 섭취를 유도해야 한다. 물의 섭취는 빠른 사료 섭취를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시기 이후 9일간은 하루에 500g씩 사료를 점차적인 증량 급여는 자궁의 회복과 자돈 성장과 설사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나. 사료 신선도 관리를 철저히 하자

잔량의 사료가 쉽게 부패는 모돈의 식욕 부진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돈 사료 급여 후 30분이내에 먹지 않으면 과감히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사료 부패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급이기에 남아 있는 물의 온도는 분만사 온도 때문에 상승하므로 마시지 않는 물은 빨리 빨리 비워져야 한다.

다. 문제돈 처치를 신속히 하자

분만 후에 웅크리고 있거나 잘 일어나지 않는 모돈들은 대부분 후산정체를 의심해야 한다. 후산정체가 있는 모돈들은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사료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태하게 된다.

후산정체가 의심되는 모돈은 무리한 항생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가장 필요한 것은 PGF2a(루텔라이스, 이리렌) 제제의 투여와 대사 촉진제(카토살)의 투여하는 것이다. 이런 신속한 조치는 자궁속에 남아 있는 후산이나 사산 태아가 배출되어 모돈이 신기할 정도로 빨리 회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양돈**